

Robert Vannoy) , 대선지자, 강의 1

이사야의 인물, 이사야의 맥락, 구조

I. 이사야

A.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가족에 대한 몇 가지 논평 우리는 이사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A.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설명.”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 야웨께 있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루트 *야샤* ’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웨 . “ 구원은 야웨께로 말미암음이니라” 또는 “야웨는 구원이니라” 는 것이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사야서를 제외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와 확실히 동일하지 않은 개인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3장 21절을 보면 “ 그는 하나냐의 자손이요 : 블라다 와 여샤야 .” 그 여샤야 이사야와 이름이 같습니다. 단지 다르게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역대상 25장 3절에서 이름 목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샤야가 나옵니다 . 다른 이름과 동일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사야와 동일합니다. 15절을 보면 “여덟째는 여샤야 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함께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1:1; 그는 더 나아가 아모스 의 아들로 확인된다 . 나는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볼 때 이 점을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사야의 아들

아모스 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보라 ” 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모스(Amoz) 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모스는 *사데(sade)* 와 알레프(alep) 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 아모스는 ’ *아인(ayin)* 과 사 메크(*samek*)입니다 .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 Amoz ” 이지 ” Amos ” 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로 큰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 Amoz 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 확인할 수 없는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모스는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왕의 조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 외에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특히 7장을 보면 이사야가 전하는 다양한 예언에 등장하는 배경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7장 3절을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 슽 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 이곳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 곳과 가깝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앗수르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했을 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부름을 받았으며 이사야서는 책의 대부분을 통해 예루살렘 안이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가 결혼했고 상징적인 이름을 지닌 아들이 적어도 두 명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나가라 .” 스알야 숨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다. *shear*는 “남은 자” 를 의미하고 *jashub*는 “돌아온다” 를 의미하는 *shub* 에서 유래했습니다 .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배가 올 것이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심판 너머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8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큰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보통 붓으로 그 위에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그리고 나는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 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나의 믿을 만한 증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여선지자에게 갔다.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들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좋은 이름입니다. Maher-Shalal-Hash-Baz의 의미는 “전리품을 서두르고 전리품을 빠르게 획득하십시오”입니다. “전리품을 서두르고 약탈 속도를 높이세요.” 여기서 NIV 메모에는 *약탈에 신속하고 전리품에 신속하다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 어쨌든 이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5장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분노의 몽둥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내가 그를 신이 없는 나라에게 보내노라.”

즉, 여호와께서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앗수르를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6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나를 노엽게 하는 백성에게 내가 그를 보내노니” 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 “탈취하고 약탈하려고”. 그들은 Maher-Shalal-Hash-Baz와 같은 단어입니다: “전리품을 빼앗고 약탈물을 빼앗다. 앗수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리아인들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즉, 앗수르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앗수르 자신의 이익 뒤에는 앗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닥칠 심판을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연대기와 왕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는 유다의 여러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일련의 공동 섭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는 다소 복잡합니다.

연대순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기원전 767년부터 히스기야 통치가 끝나는 기원전 695년까지를 살펴보세요. 다소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시대에 죽임을 당했다는 유대 전통, 즉 랍비 전통이 다시 있습니다.

므낫세 치하에서 이사야가 죽는 전설 유대인의 전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므낫세는 물론 매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의 부하들에게서 도망쳐 속이 빈 나무에 숨었고, 그의 부하들은 그 나무를 베어 버렸습니다. 두개의.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언급하고 “톱으로 잘려졌다”고 말하는 암시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그들은 둘로 잘렸습니다.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

이제, 그 전통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 표제에는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므낫세 시대의 이사야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통치가 끝난 후에도 생존했고 므낫세 시대에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37 장 38절을 보면, “ 어느 날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이는 앗수르 왕 산헤립을 가리킨다) 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베었으니 ” 칼을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사르하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 에사르하돈 의 계승은 산헤립이 죽은 후에 이루어졌고 , 우리는 아시리아 기록을 통해 산헤립이 기원전 681년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꽤 확실한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므낫세 시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공동 섭정을 하든 단독 통치를 하든 그것은 므낫세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1:1의 머리말에 므낫세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은 후 매우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공개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물론 추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책 40~66장의 두 번째 부분이 그때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오면서 포로생활에 대한 심판은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열왕기는 므낫세 시대 이후에도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사악함으로 인해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이사야가 행한 일이 공적인 사역에서 물러난 것이며 아마도 경건한 사람들, 즉 “남은 자들” 을 대상으로 한 좀 더 개인적인 종류의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구출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으며, 이 예언은 그 땅에 남아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의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책 머리말에 므낫세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통치 시대까지 살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 이 책의 역사적 배경

1. 이스라엘의 배경 B. 개요의 “이 책의 역사적 배경” 이다. 6장에는 잘 알려진 이사야의 환상과 함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더라.” 웃시야 왕이 죽은 해는 BC 739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웃시야의 죽음이 유다의 번영과 정치적 힘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 남쪽 유다의 웃시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매우 번영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유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52년쯤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분기에 요나서의 배경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약 100년 전 아합 시대에, 그리고 이어서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예후는 기원전 840년, 즉 약 한 세기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후는 앗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살만에셀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예후가 살만에셀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림이 있는 검은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시 앗수르가 유다를 위협했지만 그 후 앗수르는 쇠퇴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우라르투족에 의해 북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아니라 “아람”

이라고 더 잘 불리는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곧 아람도 약해졌기 때문에 웃시야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르면 시리아와 앗수르가 모두 약해져서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번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 아시리아의 상황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다시 세력을 키워 다른 민족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기원전 745년 - 72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iglath-Pileser III는 신 아시리아 제국으로 알려진 것을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에는 디 글랏 빌레셀 3세,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그리고 나중에 유다와 히스기야를 공격할 산헤립 등 일련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기록에서 우리는 디글랏빌레셀이 북부 시리아에서 “ 유다 의 아지아후 ” 가 속한 왕들의 동맹에 맞서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웃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웃시야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때때로 그는 아사랴(아사랴 또는 웃시야)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지아후가 웃시야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다 왕 아사랴나 웃시야라고 생각합니다.

디글랏-필레셀은 자신이 맞서 싸웠던 이 왕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기원전 7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시리아 기록에 따르면, 구약성서에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43년에 그는 여러 왕 연합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 중에는 웃시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디글랏빌레셀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이다. 보십시오, 그것은 디글랏-빌레셀의 통치 초기입니다. 그의 또 다른 연대기에서 그는 사마리아의 므나헴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 북왕국으로 넘어가면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19절을 보면 여기에 성경적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 그 다음 풀 ”(이것은 디글랏 빌레셀 의 바빌로니아 이름입니다 . 디글랏 빌레셀은 아시리아 이름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그를 부릅니다.) 풀 과 그는 여기 열왕기에서 풀이 라고 불립니다 .) “그 때에 앗수르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하였고 므나헴은 그에게 은 천 달란트를 주어 그의 지지를 얻고 나라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하였느니라.”

므나헴은 이스라엘에게서 이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올브라이트는 이를 기원전 738년으로 본다. 티엘은 이를 기원전 743년으로 본다. 어쨌든 티글라트-필레세르 시대 에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이 다시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글랏 빌레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나헴은 내가 그를 압도하자 그가 새처럼 도망쳤습니다. 나는 혼자서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금, 은, 아마포 옷과 다양한 색깔의 장식품을 받았습니다.” 참고 문헌(로마 숫자 ID 아래)을 보면 ANET(James C. Pritchard의 *고대 근동 텍스트*)에서 가져온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추가 성경 본문의 표준 모음입니다. 이 시기의 아시리아 연대기 중 일부를 보려면 25~29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점은 이사야 사역 초기인 웃시야 시대에 앗수르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모두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 시로 -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4년)

역사적 맥락에 관한 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원전 734년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시리아 즉 아람과 북왕국 에브라임이 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인데, 이것이 이사야 7장부터 11장 예언의 역사적 배경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유다를 공격한다. 유다의 왕위를 빼앗고 아하스를 제거하였느니라 이사야 7장을 펴면 5절에 “아람” 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NIV를 읽으면 “Aram”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시리아”라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합니다. 내 생각엔 아람어가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어로 나타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는 '아람' 입니다. 시리아라는 용어는 아시리아(Assyria)의

단축형이다. “시리아”라는 제목은 실제로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가 동쪽으로 진출했을 때 그리스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앗수르 땅의 서쪽 지역인 다마스쿠스 주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아시리아(Assyria)의 단축형인 “시리아(Syria)” 라고 불렀습니다. 그 용어는 전통을 통해 영어 버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와 앗시리아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마스쿠스 주변 지역을 “아람”으로 말하고 동쪽으로 더 먼 지역인 티그리스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 용어에 더 확실하고 더 가깝습니다. - 유프라테스 지역,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지역 북부에 있던 아시리아.

그러나 이사야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찢고 우리끼리 나누어 다 브엘 의 아들로 그 위에 왕을 삼자 하였느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언급된 것은 북왕국 곧 여기서는 에브라임과 시리아(아람)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여 이같이 꾀한 것을 가리킨다. 아하스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는 이 일을 매우 염려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앗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이사야는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7장의 맥락입니다. 이사야는 앗수르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환난과 슬픔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아하스가 의지한 앗수르는 북왕국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왕국 유다에게도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기원전 734년경을 보면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나고 기원전 721년에는 사마리아가 앗수르에게 완전히 패배합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기원전 701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유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와의 동맹은 확실히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 기원전 734년 이후의 다음 중요한 사건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며, 그로부터 2년 뒤인 732년, 다메섹이 앗수르에게 함락되었습니다. 732년에 티글라트필레셀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지만, 북왕국을 즉시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십시오: “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과 아벨벤 마아가 와 야노아 와 게데스 와 하솔을 점령하였느니라. ” 그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는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빼앗고 그 백성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느니라. “그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 말랴의 아들 베가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 저가 그를 쳐 죽이고 웃시야의 아들 요담 제이십년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 15:30).

그래서 호세아가 베가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고 사마리아에서 왕좌를 차지하는 혁명과 음모의 권위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ANET에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의 연대기를 보면 그가 호세아를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열왕기하 15장 30절의 30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거슬러 모반을 하였느니라 .” 그러나 그는 앗수르의 지원을 받아 그렇게 했음이 틀림없으므로 호세아는 왕좌에 있는 앗수르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그의 연대기에서 호세아를 이스라엘 의 왕좌 에 앉힌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당신이 보는 것은 아시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북왕국에 압력을 가하고 일부 도시를 점령하고 심지어 그곳의 통치를 어지럽히고 자신들의 사람을 북왕국의 왕위에 앉히고 있습니다.

4. 사마리아 함락(기원전 722/721년)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10년 후)은 앗시리아가 사마리아를 함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북왕국의 멸망입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왕좌에 올랐으나 얼마 후에 그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디글랏 빌레셀의 후계자인 살만에셀과 그의 후계자 사르곤이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보면,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살만에셀의 신복이자 그에게 조공을 바친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다. 그러나 앗수르 왕은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알고

에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냈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살만에셀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앗수르 왕은 온 땅을 침략하여 사마리아로 진군하여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더라. 7절은 “ 이 모든 일 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남왕국 히스기야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18장을 보면, 9절에 “히스기야 왕 넷째 해 곧 이스라엘 왕 엘라 의 아들 호세아 칠년이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사마리아로 진군하여 그곳을 포위하였습니다. 3년 후에 아시리아인들이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느니라.”

5. 산헤립의 예루살렘 공격(기원전 701년) & 히스기야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인 기원전 701년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장 13절로 내려가면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끝부분에서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더라.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시체는 모두 시체였습니다! 그래서 앗수르 왕 산헤립은 진을 깨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네베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래서 기원전 701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잘 언급했듯이 예언된 대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오래 전에 아하스가 앗수르와 동맹을 맺을 때 앗수르가 홍수처럼 땅을 덮칠 것이지만 그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의 생애, 즉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앗수르 왕과 동맹을 맺는 상황에서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장 15절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은을 다 그에게 주었더라” 고 했습니다. 글썬요, 이것은 정치나 그런 관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갈 것이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물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제 관련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앗수르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여전히 앗수르의 통제 지역 내에서 뚜렷한 요소인 바벨론에 대해 어떤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 제안은 아시리아에 의해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촉발한 반란으로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앓수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는 데에는 연대기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6~39장에는 이와 유사한 역사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순서는 연대순보다는 주제적, 즉 논리적 기준에 따라 배열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문제의 일부는 그 사건들의 정확한 순서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에서 바벨론의 사절이 마지막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조공이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보여줄게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나 그 사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 생각의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해 이사야서의 이 부분의 끝에 배치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연대순 정렬보다는 논리적 정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모든 일을 바로 여기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마도 묻는 질문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열왕기하 18장의 처음 16절은 히스기야의 통치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가서 17절부터 시작하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특정 이벤트에 대한 계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전체 흐름에서 연대순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6. 히스기야 통치의 주요 날짜 히스기야의 연대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734, 시리아 - 유다에 대한 에브라임 전쟁; 732년, 다마스쿠스가 아시리아에 함락됨; 721년, 사마리아가 함락됨; 701,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므낫세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때는 남왕국에 큰 배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므낫세 시대 동안 유다의 포로 생활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으며, 이사야가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위로와 위안, 희망의 말을 전하고 반드시 다가올 심판 너머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 즉 유배는 확정적이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거기엔 끝이 있을 것이다. 돌아올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 이사야서의 구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사야 예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책의 구조”인 c. 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개요를 설명하기 어려운 책이다. 나는 여기서 책 구성의 몇 가지 원리를 찾아 책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 블록으로 나누기 위해 Dr. Allan MacRae 로부터 선택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이 책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칠판의 첫

번째 줄은 이사야서를 나타냅니다. 나누기 시작한다면 주요한 구분점이 있는데 바로 이 섹션인 36~39장입니다. 왜냐하면 36~39장은 책의 나머지 부분과 형식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36~39장은 역사적 서술이다. 사실, 그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열왕기에 나오는 역사적 서술과 산헤립의 위협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7장과 18장 부근이 우리가 방금 본 부분입니다. 그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1부터 35까지와 40부터 66까지. 1부터 35까지와 40부터 66은 둘 다 역사적 서술과 구별되는 예언적 담화입니다.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아하스 시대나 그 이전에 행해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웃시야 시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5장은 이사야 사역의 초기, 혹은 상대적으로 초기의 기록이며, 대부분 아하스 시대에 해당합니다. 36장부터 39장 - 예언적 담론은 아니지만 히스기야 시대를 다룬 역사적 서술이다. 36-39장에서 보는 것은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 중 일부가 성취된 것입니다. 특히 그 예언은 앗수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지라도 앗수르가 온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앗수르가 공격할 것이지만 유다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6~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40~66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섹션 1부터 35까지를 작업하고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구분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6장은 그 자체로 일종의 단위를 형성하고, 7장부터 12장, 13장부터 23장, 24장부터 27장, 그런 다음 28에서 35까지입니다. 이것이 구분입니다. 이제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펴보자.

가장 명확한 단위는 13~23, 24~27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선 위에 설정했습니다. 13장부터 23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묶음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13:1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매우 빠르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것이라” 이사야 15:1, “모압에 관한 말씀이라.” 17장, “다메섹에 관한 예언.” 18장, “구스 강을 따라 날개가 우는 땅이여, 바다로 파피루스 배를 타고 바다 위로 사신을 보내는 땅은 화 있을진저.”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는 아마도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였을 것입니다. 19장, “이집트에 관한 예언.” 여기 이 섹션에서는 외국에 관한 예언을 볼 수 있으며, 그런 종류의 예언이 독특한 섹션으로 구분됩니다.

24~27장에 이르면 그 부분은 흔히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24-27장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지구상의 나라들에 임할 큰 심판에 대해 말하는 예언들의 모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범위가 상당히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입니다.

이 두 섹션은 1에서 6, 7에서 12, 28에서 35까지 꽤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에서 35에 이르렀을 때 가장 명확한 섹션은 아마도 7에서 12일 것입니다. 13에서 23, 24를 뺐을 때 27부터 1부터 12까지 남습니다. 하지만 1부터 12까지 중에서 7부터 12가 명확한 단위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수로-에브라임 전쟁과 그 여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네 아들 스알야 숲을 데리고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가 앗수르와 맺은 동맹에 대하여 그와 대면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앗시리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장부터 12장은 특정한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734년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단위로 구별됩니다. 그 단원은 흔히 “임마누엘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의 맥락에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잉태할 것이요. 아들이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신이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그 맥락과 연결하는지, 동시에 그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는지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잘 알려진 구절인 이사야 7장 14절은 이 부분, 즉 7-12장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서” .

그러면 1~6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6장은 본질적으로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수로-에브라임 전쟁 을 7~12년처럼 특정 역사적 배경으로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1-6장은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세 부분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은 1:1부터 2:5, 2:6부터 4:6, 5:1부터 6:13입니다. 이 세 부분의 특징은 심판의 선언이 있고 그 뒤에 미래의 축복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요에서 미래의 축복을 말하는 부분은 괄호 안에 있습니다.) 1:1~2:5, 2:1-4에서 미래의 축복을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심판이 있고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2:6에서 다시 심판으로 돌아가지만 4:2-6에서는 미래의 축복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5장 1절에서 다시 심판으로 돌아가지만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경우 후자의 축복은 이사야의 부르심과 그가 본 환상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당신은 그 자료의 성격이 심판,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축복; 심판, 축복. 세 가지 섹션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화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1부터 35까지의 자료가 구성되는 방식이 제공됩니다. 실제로 이 5개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언은 외국에 대한 예언처럼 일종의 조직 원칙을 중심으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묵시적 심판;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판단의 속성; 그리고 축복.

28-35장은 7-12장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28-35장은 수로 와 에브라임 전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12장은 유다 왕위에 앉은 다윗 가문의 무가치한 대표자인 아하스 왕에게 더 많이 언급된 반면, 28~35장은 그 땅의 귀족들에게 더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왕을 제외한 리더십. 그러나 그것은 “임마누엘서” 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우리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책의 마지막 27장인 40장부터 66장까지 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비판적인 학자들이 여기에 다른 작가가 있다고 제안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소재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그토록 두드러졌던 아시리아는 이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지자는 므낫세와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슬픈 상황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유배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배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유배에서 풀려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 생활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보고,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포로 생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초점은 유배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책의 첫 번째 부분인 1-35장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촉구와 관련 있는 반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상당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혀 강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배를 넘어선 미래의 희망과 위로, 위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줄 가치 있는 것을 주고, 포로와 심판의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이사야 40-66장 27장 중 중심장이 되는 이사야 53장(40+13)이 나오는 13장이 흥미롭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이 들어가고 이후의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클라이맥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섹션의 중간입니다. 40-66절의 중심에는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종”의 고통. 그것은 하인의 구절 순서의 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름답고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질문은: 그 메시아적 주제(종의 고통)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의 전체 초점과 어떻게 관련됩니까? 망명에서 구출되었을 때? 포로 생활과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이 종이 죽는 것으로 절정에 달하는 이 종 주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다음번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Jessica Burton 작성

Carly Geiman의 초기 편집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